

내러티브 반응 과정과 냄비 성향이 낙인에 미치는 효과

메르스(MERS) 위험을 중심으로 한 분석*

김영옥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함승경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박사과정***

이 연구는 메르스와의 사투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이 공동체로부터 기피되고 비난받는 낙인화 현상에 주목해서, 위험 사회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메르스 낙인화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내러티브 효과에 의한 감정 반응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위험 사건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감정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부정적 감정은 위험 인식을 증가시키지만 낙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 기능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위험 인식과 낙인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변인으로서 냄비 성향이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위험 이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낙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KEYWORDS 내러티브, 감정, 위험 인식, 낙인, 냄비 성향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38236).

** kimyw@ewha.ac.kr, 교신저자

*** hamseungkyung@gmail.com

1. 서론

위험의 사회 확산 분석 틀에 의하면 낙인은 위험의 발생에서 시작된다. 위험과 관련된 낙인은 높은 가시성을 지니며 낙인화된 대상에 부여된 표식이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또한 이러한 표식은 낙인화된 대상의 속성을 변화시키고 가치를 절하시킨다(Kasperson, Jhaveri, & Kasperson, 2001). 사람에 대한 낙인화 연구는 정신병이나 전염병과 같은 질병과 주로 관련되었는데, 개인의 실수로 질병을 얻게 되거나, 질병 자체가 치명적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거나, 그리고 질병의 증상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 낙인화되는 경향이 늘어난다(Cogan & Herek, 1998). 국내에서 2015년 발생한 메르스(MERS) 감염은 치사율과 감염의 위험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질병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은 상태에서 감염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낙인화 현상을 보였다. 메르스 낙인화의 증거는 다양한 상황에서 포착되었는데,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었던 한 의료진이 격리 해제 후에 그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두 지역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회적 낙인 현상이 나타났다(JTBC, 2015. 6. 26). 뿐만 아니라 학교와 유치원에서 격리 치료자와 의료진 자녀들의 등교를 꺼리자, 급기야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인 자녀의 등원과 등교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연합TV뉴스, 2015. 6. 22).

낙인은 미디어의 집중적인 위험 보도와 관련된다. 2003년 미국에서 사스(SARS)로 인한 사망자는 10여 명으로 나타났지만, 미디어 보도는 6만여 건을 기록했다. 반면, 10만여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흡연에 대한 보도는 1만여 건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Bomlitz & Brezis, 2008). 사건·사고 기사는 단순히 사건·사고의 발생을 전달하는 기사에서 사건의 의미를 전달하는 해설 기사까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내러티브를 갖추고 있다(White, 1997). 내러티브는 인물, 사건, 그리고 배경이 인과

관계로 엮여 있는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어(Hinyard & Kreuter, 2007), 수용자들이 내러티브에 몰입되어 간접 체험을 경험하거나 내러티브 속의 인물과 인지적·감정적 동일시를 경험하면서 태도와 신념의 변화를 일으킨다(Appel & Richter, 2007). 감정은 내러티브 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Fabrigar & Petty, 1999), 메르스 위험 보도의 내러티브도 수용자들에게 메르스 감염에 대한 간접 경험을 체험하게 하거나 또는 감염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감하면서 메르스 감염자에 대한 태도와 신념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낙인과 관련된 미디어의 보도의 영향력을 눈에 드러난 양적 측면의 효과가 아닌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러티브의 반응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 인식도 낙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Kasperson et al., 2001). 위험 지각은 인지와 감정으로 나뉘는데(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4), 감정으로서의 위험은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반응인 동시에 불확실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행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위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위험을 손실로 간주하는지 혹은 윤리적 문제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Böhm & Pfister, 2000). 윤리에 근거한 감정적 반응은 분노나 죄책감으로 나타나며, 손실에 근거한 감정적 반응은 공포나 슬픔 등으로 표현된다(Sjöberg, 2004). 물론 위험 인식이 인지와 감정 등 심리학적 요인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문화·제도 등에 기반한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Crompton, 2011). 따라서 위험 인식과 낙인 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위험과 관련한 감정과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낙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가 위험 인식과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냄비 성향이다. 냄비 성향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에 쉽게 끓어오르고 빨리 식어 버리는 성향으로 정의되는데(김영

욱, 2014),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지만, 급격하게 이루어진 동조가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를 위한 분석적 사고와 합리적인 행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급격하게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메르스와 같은 감염 질병 확산은 동조를 높이는 문화와 관련되는데(Murray, Trudeau, & Schaller, 2011), 이는 전염병 확산의 상황에서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동조 거부는 위험 노출 감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르스 감염 확산과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급격한 동조를 특징으로 하는 냄비 성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냄비 성향이 메르스에 대한 높아진 공포감과 위험 인식을 증가시키거나, 나아가 감염자에 대한 기피와 비난 등의 행동에 급격한 동조를 형성하면서 낙인 형성에도 관여하는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 근거해 내러티브 반응, 부정적 감정, 위험 인식, 그리고 낙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변인으로서 냄비 성향이 위에서 제시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은 메르스 등 감염 질병의 확산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낙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낙인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기반한 고유한 문화적 변인이 위험 인식과 낙인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위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문헌 연구

1) 내러티브 반응

위험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는 미디어에 의한 과도한 정보 유통이다(Mazur, 1984). 사스(SARS)와 웨스트 나일(West Nile) 바이러

스와 같은 신규 감염병에 대한 위협 보도는 흡연이나 운동 부족 등 만성적인 질병의 보도 건수보다 다섯 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Bomlitz & Brezis, 2008). 미디어의 집중적 관심은 속도 경쟁으로 이어지고 공포 확산으로 감염자에 대한 낙인화를 초래할 수 있다(권관우·이경무·변진옥, 2002). 이러한 낙인화는 감염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에게까지 확산되어 사회적 차별, 불신 등으로 공동체의 사회적 거리감을 깊게 만든다(김여라, 2010). 뿐만 아니라 감염자 치료와 예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건·사고를 기술하는 스토리 기사와 사건의 의미를 전달하고 논쟁을 촉발시키는 이슈 기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내러티브를 갖추고 있다(White, 1997). 사건은 내러티브를 통해 단순한 시간적 배열이 아닌 인물, 그리고 사건의 관계와 질서가 문화적으로 의미 있게 구성된다(Bird & Dardenne, 1988; Mumby, 1993).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호모 내러티브의 관점에서(Mumby, 1993), 인간의 경험이 고정되고 객관적인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주의적 관점은 도전받게 된다. 즉, 내러티브는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내러티브는 수용자들의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ppel & Richter, 2007). 단순한 정보의 형태가 아닌 인물, 배경, 사건의 인과관계가 짜진 내러티브는 수용자들의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 내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을 갖는다. 내러티브의 이런 효과는 내러티브 설득으로 불리면서, 헬스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영역에서 관심을 끌어왔다. 그러나 내러티브가 수용자들의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수용자가 스토리에 빠지거나 스토리 세계에 몰입되는 정도가 내러티브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Green & Brook, 2000; Moyer-Gusé, 2008).

헬스 메시지에서, 내러티브의 효과는 통계적 수치나 교육적인 정보

전달과 비교되면서 평가되었다. 내러티브는 교육적 메시지보다 이해를 증가시키고(Graesser, Olde, & Klettke, 2002; Schank & Abelson, 1995), 반박을 줄이고(Green, 2006), 자아 효능감(self-efficacy)을 높임으로써(Moyer-Gusé, 2008) 설득을 이끌어 낸다고 본다. 동성애자와 관련된 간염(Hepatitis) 바이러스 위험 지각 연구에서 내러티브 메시지가 통계 메시지보다 위험 지각을 증가시켰고(de Wit, Das, & Vet, 2008), 내러티브 형식의 영상은 유방암 위험 지각과 공포를 높였다(McQueen, Kreuter, Kalesan, & Alcaraz, 2011). 그러나 내러티브의 효과가 통계적 메시지 효과보다 모든 경우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Wilson, Mills, Norman, & Tomlinson, 2005).

내러티브 경험이 만들어 낸 반응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 그린과 브룩(Green & Brook, 2000)은 게리그(Gerrig, 1993)가 사용한 몰입(transportation)이라는 용어를 통해 내러티브 효과를 설명했는데, 그들은 몰입을 이야기에 대한 주의 집중, 감정, 상상적 이미지로 정의했다. 반면, 슬레이터와 로우너(Slater & Rouner, 2002)는 몰입과 유사한 흡수(absorption)라는 용어를 사용해 등장인물의 감정과 성격을 대리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내러티브 효과 차원에서 몰입(transportation) 개념의 사용은 학자들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이도 존재한다. 슬레이터와 로우너가 제시한 몰입은 등장인물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감정 이입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동일시와 유사성을 보인다. 반면, 게리그와 그린과 브룩이 제시한 몰입은 현실을 벗어난 내러티브 세계에 대한 경험적 측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등장인물에 대한 감정적·인지적 개입인 동일시와는 차이가 있다. 모예르-구세(Moyer-Gusé, 2008)는 등장인물과의 동일시는 내러티브 그 자체에 대한 개입, 즉 몰입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개념 간의 차이점을 지적했지만, 동일시와 몰입 간의 중복도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몰입과 동일시의 명확한 경계를 짓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내러티브 세계에서 몰입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attention), 가상(imaginary), 감정(emotion)이 통합된 것으로 정의된다(Green & Brock, 2000, 2002; Gerrig, 1993). 몰입의 기능은 심리적 시뮬레이션을 촉진시키고, 인지와 감정에 기반한 강한 태도를 형성시켜 내러티브에 일치하는 신념과 행동을 이끌어 낸다(Green & Brock, 2000, 2002). 예를 들어 동성애 혐오에 관한 내러티브에 몰입한 실험 참가자는 동성애 혐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een, 2004). 이런 이유로 몰입은 등장인물에 대한 관여(involvedness)나 감정보다 태도와 신념의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Green & Brock, 2000).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몰입과 동일시의 명확한 구분을 설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몰입된 수용자가 등장인물과 동일시하거나 친근감을 갖게 되면, 등장인물이 경험한 사건의 내용이나 주장이 수용자들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험 연구에서도 몰입은 공감하는 등장인물에 대한 긍정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고(Green & Brock, 2000), 한 단계 더 나아가 몰입과 몰입의 효과로서의 즐거움을 동일시가 매개하기도 한다(Green, Brock, & Kauffman, 2004). 따라서 몰입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동일시와 명확한 경계짓기보다는 동일시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용자들이 내러티브의 이야기에 빠지게 되면 등장인물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게 된다. 등장인물이 위협에 처했을 때 긴장하거나 슬픔과 기쁨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등장인물과 하나가 되어 인물의 지식을 공유하고 목표를 수용하며,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동일시라고 한다(Cohen, 2001, 2006). 따라서 동일시는 등장인물과의 공감과 감정 이입뿐 아니라 그들의 관점(perspective)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인지적 요인까지를 포함한다. 이런 이유로 동일시는 내러티브 수용자들이 경험하는 일시적인 정체감 이동으로도 설명된다. 이러한 동일시의 특성은 수용자가 내러티브 세계에서 등장인물과의 감정 이입과 함께 사건

의 대리 경험과 같은 정신적 자극을 현실로 인식하면서(Oatley, 1999), 그에 맞게 신념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Green, 2006). 경험 연구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감정적 관여가 태도 변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고(Busselle & Bilandzic, 2009), 등장인물의 관점 수용과 감정 이입은 스토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도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De Graaf, Hoeken, Sanders, & Beentjes, 2009). 이런 이유로 동일시도 몰입과 같이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내러티브 설득 기제 중의 하나로 주목받는다(Green, 2006; Slater & Rouner, 2002). 물론 몰입과 동일시 모두 태도와 행위 변화 효과를 보이지만 그 효과의 기저는 인지적 작용이라기보다 감정에 의존한다(Green, 2004; Moyer-Guse & Nabi, 2010).

던롭과 그의 동료들(Dunlop, Wakefield, & Kashima, 2008)은 수용자들이 특히 건강 관련 내러티브 메시지에서 내러티브 상황과 등장인물에 근거한 몰입 반응을 통해 자아 준거(self-referent) 반응으로 이어질 때 몰입 반응에 그치는 경우보다 더 큰 개인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주장했다. 자아 준거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이나 기대를 메시지와 관계 짓도록 유도하는 과정으로(Burnkrant & Unnava, 1995) 설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몰입이 감정적인 가상적 과정이라면, 자아 준거 반응은 인지적 과정이다(Escalas, 2007). 수용자들이 몰입을 통해 내러티브 세계를 간접 경험하고, 이를 통해 위험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과 위험 행위에 대한 부정적 결과도 경험하게 되는데, 자아 준거 반응은 이러한 과정에서 메시지 위험과 자신을 관련지어 위험 인식을 높인다. 이런 이유로 내러티브 위험 메시지에서 몰입을 통해 등장인물과 동일시를 경험하게 되면 슬픔을 느끼지만, 자아 준거 반응을 보일 경우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Dunlop et al., 2008). 예를 들어 흡연으로 폐가 손상된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묘사한 내러티브에서 등장인물들과 공감한 경우 슬픔을 느끼지만, 내러티브 속 상황과 자신의 흡연 경험을 연결 지어

미래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공포 반응을 보인다. 이와 같이 건강과 관련된 내러티브 메시지에서 자아 준거 반응은 위협 행위로 발생하는 비용과 부정적 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위협 지각을 증가시켜(Baumeister, Vohs, DeWall & Zhang, 2007), 공포 감정을 유도하고 위협 행위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Dunlop et al., 2008).

2) 감정과 위협 인식 그리고 낙인

현대 사회에서 위협은 경험적 그리고 분석적으로 이해된다(Slovic et al., 2004). 위협에 대한 이러한 이해 방식은 정보와 사고의 이중적 처리 방법(dual-process theories of thinking and information processing)에 근거한다. 경험적 처리 방법은 감정에 근거한 것으로 직관적·자동적 내러티브에 의존하는 반면, 분석적 처리는 합리적·이성적 사고에 의존한다(Epstein, 1994). 정서(affect)는 행위(behavior)를 동기화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Forgas, 2000). 예를 들어 동물에게 다가가는 것이 안전한지, 강물이 식수로 마실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은 직관적이고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감정에 의존하는 경험적 시스템은 복잡적이고 불확실하고 위험한 세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 왔다. 그러나 환경 통제와 위협의 문제 등이 복잡해지면서 위협 관리에 대한 분석적 시스템의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직관적인 감정은 위협을 평가하는 지배적인 방법이다.

위협이 제공하는 혜택과 위협 인식 간의 부적 관계는 감정의 강도와 관련된다. 위협 사안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가지면 위협이 낮다고 판단한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위협이 높다고 인식한다. 더욱이 시간적 압박을 받게 되면 감정에 무게가 더 많이 실린다. 각성된 감정은 위협 사안과 위협 지각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Xie, Wang, Zhang, Li, & Yu, 2011). 특정한 감정은 특정한 행동을 유도한다(Lazarus, 1991). 분노 감정은 공격적 행동을 일으키고, 공포를 경험한 사

람은 회피한다. 그러나 기술적 재난으로 인한 공포 감정은 위험 회피에서 책임자 공격까지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난다(Xie et al., 2011). 감정에 기반한 낙인 수용 모델(Emotion-based Model of Stigma Susceptibility)에 의하면 감정 반응과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낙인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위험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낙인을 형성한다(Peters, Burraston, & Mertz, 2004).

낙인화(stigmatization)는 위험과 관련된 특정 사람, 상품, 장소, 기술 등에 붙여지는 부정적인 이미지, 감정적인 반응, 사회적 차원의 행동을 의미한다(Gregory, Flynn, & Slovic, 1995). 낙인은 공포와 관련되지만, 공포 개념을 넘어선다. 낙인화는 이전의 긍정적 특성을 훼손시키고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Gregory et al., 1995). 질병의 낙인화는 질병의 원인이 개인들의 실수이거나, 치명적이거나, 질병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때, 마지막으로 질병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발생한다(Cogan & Herek, 1998). 특히 개인의 통제력은 낙인에 영향을 미친다(Corigina, 2000; Mak et al., 2006).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되면 비난을 받거나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게 된다(Corrigan, 2000; Corrigan, Markowitz, Watson, Rowan, & Kubiak, 2003).

대표적으로 낙인화된 감염 질병은 에이즈다(Crawford, 1996).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감염을 의심받는 사람들은 치료 또는 외국으로의 입국이 거부되거나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된다(Herek, 1999). 결핵도 낙인화된 감염 질병인데, 감염된 개인은 불결한 존재로 취급받거나 전염 정도가 과평가되어 고통을 받기도 한다(Yamada, Caballero, Matsunaga, Agustin, & Magana, 1999). 이런 이유로 사람에 대한 낙인은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고 보는 사회적 규범의 결과이거나(Link & Phelan, 2001), 지각된 위협과 공포 반응이거나(Ogden & Nyblade, 2005), 또는 권력, 통제, 도덕성과 관련된 사회적 과정(Alonzo, 1995)으로 보기도 한다. 감염 질병의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감염자에 대한 공동체 지지가 필

요하다고 제안되기도 한다(Parker & Aggleton, 2003). 이런 관점에서 내러티브 메시지 등장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한 일시적 정체성 이동의 경험은 낙인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연구는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부정적 감정인 공포뿐 아니라 내러티브 속 등장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형성된 슬픈 감정이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3) 냄비 성향과 위험 인식, 그리고 낙인

냄비 성향은 '쉽게 끓어오르고 빨리 식어 버리는 성향'으로, 하나의 사안에 집중적이고 급격한 관심을 보이다가 지속되지 못하고 다른 사안으로 관심의 방향과 에너지가 전환되는 속성이다(김영옥, 2014). 냄비 성향은 두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사회적 실흘림 현상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동조'이고 다른 하나는 급격한 동조가 지속되지 못하는 '지속성 기대 붕괴'이다.

씨알디니와 골드스타인(Cialdini and Goldstein, 2004)은 동조의 동기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반응,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형성,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 유지로 나누었다. 그러나 각각의 개념은 구분되지 않고 상호 관련되는 경향을 보인다(David & Turner, 2001). 개인들은 다수가 선호하는 의견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사회적 압력에 동조한다(Tetlock, 1985, 1992). 그러나 동조에 이르는 과정은 단선적이지 않다.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도가 심한 이슈를 접했을 때 메시지 처리보다는 규범에 집중하면서 동조하지만, 반대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메시지에 개입하면서 객관적인 합의 형식으로 동조한다(Erb, Bohner, Rank, & Einwiller, 2002). 그러나 자신과 관련성이 낮은 이슈에서는 메시지 처리에서 인지적 노력을 들이지 않고 휴리스틱을 사용하기도 한다(Erb, Bohner, Schmilzle, & Rank, 1998). 동조와 맞물려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책

임의 문제이다.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행위에 있어서 제약으로 작용하며 입장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Tetlock, Skitka, & Boettger, 1989). 그러나 동조하게 되면 논쟁과 반박을 위한 인지적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고 규범을 수용한 대가로 사회적 인정까지 받게 된다. 동조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여러 혜택에도 불구하고 냄비 성향의 동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폭발성에 있다(김영욱, 2014). 선스타인(Sunstein, 2009/2009)는 이런 현상을 동조의 폭포 현상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느끼는 압력과 연결된다(Banerjee, 1992). 이런 배경에서 냄비 성향은 집단주의 문화의 동조 압력이 만들어 낸, 즉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된 문화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냄비 성향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폭발적인 동조가 생산적인 결과를 형성하지 못하고 급격한 쇠퇴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이러한 냄비 성향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운스(Downs, 1972)가 주장한 이슈의 생성과 쇠퇴 주기의 단계별 특징이 참고가 된다. 다운스가 제시한 이슈 주기는 5단계로 구성되는데, 공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문제 이전’ 단계를 지나 ‘발견과 열정’ 단계에서 공중은 특정 현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대한 낙관적 열정을 갖게 된다. 이후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한 비용 인식’ 단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용과 다수의 희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며, 그 결과 낙관적 태도가 감소되고 무력감과 식상함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문제 이후’ 단계에서 공중의 관심은 종결된다. 사회적인 현상으로서의 ‘이슈 관심 주기’를 개인적 차원의 냄비 성향에 적용하면, 냄비 성향은 급속히 관심이 증가하는 ‘발견과 열정’ 단계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한 비용 인식’ 단계로 진행되지 못하고 ‘쇠퇴기’ 단계로 전락하는 특성을 갖는다. 즉, 현안에 대한 고조된 관심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나 구조 재편 등의 생산적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간헐적 관심과 식상함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쇠퇴기’로 급선회하면서 ‘지속성 기대 붕괴’를 보인다. 급격한 동조의

쇠퇴는 동조가 갖는 정보 처리의 성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규범적 동조는 정교한 메시지 처리 없이 이루어지며, 특히 관심의 정도가 낮은 사안이라면 휴리스틱 체계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메르스 확산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고조되는 위험 인식과 낙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냄비 성향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냄비 성향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인 동조가 사회적 인정뿐 아니라 위험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머레이와 동료들(Murray et al., 2011)은 병원균이 확산된 지역에서 더 많은 동조를 요구하는 문화적 규범이 형성된 것을 발견했다. 메르스와 같은 치명적인 감염 질병이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동조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냄비 성향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냄비 성향은 메르스 감염 내러티브 기사에서 등장인물의 메르스 감염에 대해 동일시를 하기 보다는 안전에 대한 높은 욕구로 인해 위험 행위로 발생하는 비용과 부정적 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위험 지각을 증가시키는(Baumeister, Vohs, DeWall, & Zhang, 2007) 자아준거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급속한 사회적 동조를 특징으로 하는 냄비 성향은 감염 질병의 낙인화에서도 작용할 것이다. 질병의 낙인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을 배제시키고, 회피하고 차별하는 사회적 과정(Weiss & Ramakrishna, 2006)으로 그 사회의 규범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는 메르스에 대한 위험 인식과 낙인화 과정에 미치는 냄비 성향의 작용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3. 연구가설과 모델

선행 연구에 근거하면 집중적인 미디어 보도는 낙인을 일으킨다(Kasperson et al., 2001). 이 연구는 미디어 보도가 낙인을 일으키는 과정을 내러티브 보도가 형성하는 내러티브 반응과 이 반응을 통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을 통해 형성되는 위협 인식과 위협 인식에 영향을 받는 낙인 등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메르스 위협 확산에 대한 내러티브 보도가 내러티브가 없는 보도 메시지와 비교해서 수용자에게 내러티브 속의 사건을 간접 경험하게 하는 몰입 반응을 이끌어 내는지를 확인하였다(Gerrig, 1993). 그리고 내러티브 몰입이 내러티브 보도 속의 등장인물의 감정을 공유하고 행동을 이해하는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Green, 2005)과 몰입을 통한 대리 경험으로 메르스 감염에 대한 취약성과 부정적 결과를 자신과 관련짓는 자아 준거 반응에 미치는 영향(Dunlop et al., 2008)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 연구가설 1: 내러티브 메시지는 몰입을 증가시키고, 이는 동일시와 자아 준거에 증가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1-1: 내러티브 메시지는 내러티브에 대한 몰입을 증가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1-2: 내러티브에 대한 몰입은 등장인물에 대한 동일시를 증가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1-3: 내러티브에 대한 몰입은 수용자의 자아 준거 반응을 증가시킬 것이다.

내러티브가 형성하는 몰입, 동일시, 자아 준거 등의 내러티브 반응은 감정과 관련되는데(Cohen, 2001; Dunlop et al., 2008; Green, 2005), 이 연구는 메르스 내러티브 보도로 인해 형성된 내러티브 반응과 부정적 감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포와 슬픔이 분석 대상이다. 공포는 위협과 낙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부정적 감정이고(Peters et al., 2004), 슬픔도 상실감을 원인으로 하는 부정적 감정이다(최현석, 2011). 메르스 위협으로 인해 고통 받는 등장인물에 대한 내러티브 보도 메시지에서 등장인물과의 감정 이입을 통해 슬픔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위협으로 관련지어 메르스 감염에 대한 공포감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내러티브 속 메르스에 감염된 등장인물들과의 동일시가 증가할수록 메르스와 감염자에 대한 공포는 감소되고 이들과의 공감을 통해 인간적 슬픔은 증가할 것이다. 반면, 자신에게 닥칠 위협으로 인식하는 자아 준거 반응이 증가할수록 메르스와 감염자에 대한 공포는 증가되고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으로 형성되는 슬픈 감정은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내러티브 반응과 감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 연구가설 2: 내러티브 메시지 반응은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2-1: 등장인물과 동일시는 공포를 감소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2-2: 등장인물과 동일시는 슬픔을 증가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2-3: 수용자의 자아 준거 반응은 공포를 증가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2-4: 수용자의 자아 준거 반응은 슬픔을 감소시킬 것이다.

위험 인식은 감정으로 이해되는데(Slovic et al., 2004), 공포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위험 인식을 높이고 낙인을 증가시킨다(Peters et al., 2004). 이 연구가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해 한 단계 더 밝히고자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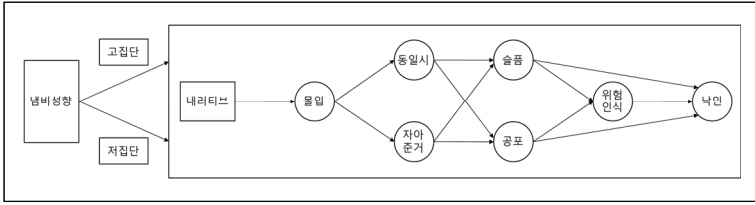
는 것은 부정적 감정 중 슬픔이 위험 인식과 낙인에 미치는 영향이다. 내러티브에서 메르스로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등장인물과 공감하면서 갖게 되는 슬픈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으로서 메르스에 대한 위험 인식을 높일 수 있지만, 감염자들을 차별하고 비난하는 낙인화 반응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그리고 공포와 슬픔이 위험 인식과 낙인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간접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 연구가설 3: 감정은 위험 인식과 낙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3-1: 슬픔은 위험 인식을 증가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3-2: 슬픔은 낙인을 감소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3-3: 공포는 위험 인식을 증가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3-4: 공포는 낙인을 증가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4: 감정은 위험 인식과 낙인을 매개할 것이다.

물론 위험 인식과 낙인이 감정과 같은 심리학적 요인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규범, 문화, 제도 등에 기반한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Crompton, 2011; Link & Phelan, 2001). 따라서 위험 인식과 낙인 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위험과 관련한 감정과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낙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변인으로 관심 갖는 것은 냄비 성향이다. 냄비 성향은 ‘쉽게 끓어오르고 빨리 식어 버리는 성향(김영옥, 2014)으로, 폭발적 동조를 보이지만 급격한 쇠퇴로 이어져 생산적인 결과를 형성하지 못한다. 냄비 성향의 큰 특징인 사회적 동조는 규범에 동조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얻고자 하거나 위험 사건에서 안전을 지키려는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안

그림 1. 연구 모형



전 욕구와 사회적 동조를 특징으로 하는 넴비 성향은 메르스 내러티브 보도에서 위협 사건을 자신의 미래 위협으로 인식하는 반응에서, 또는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위협 인식과 메르스 낙인화의 관계에서 그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넴비 성향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넴비 성향은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4. 주요 변인의 측정

1) 연구 대상

본 실험은 2016년 3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부터 만 60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성별 및 연령별 할당을 고려해 표집하였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는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총 428개 실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실험 집단은 총 215명이 참여하였고, 여성이 49.8%,

남성이 50.2%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2.3%, 30대가 27.0%, 40대가 25.6%, 그리고 50대가 35.2%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 집단은 총 214명으로 여성과 남성이 모두 50%씩 참여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2.9%, 30대가 26.2%, 40대가 25.7%, 50대가 25.2%로 나타났다. 회수된 응답지 428건 중 메르스 감염 경험과 메르스 감염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총 312건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실험 집단은 총 158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48.1%, 남성 51.9%가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20대가 22.8%, 30대가 27.8%, 40대가 26.6%, 그리고 50대가 22.8%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제 집단은 총 154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이 50.8%, 남성이 49.4%가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20대가 20.1%, 30대가 26.7%, 40대가 28.5%, 50대가 24.7%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된 집단 간 설계로 실시되었다. 실험 집단에게는 메르스 위험에 관한 내러티브 기사를 처치했고, 통제 집단에게는 논내러티브 형식의 통제 기사를 처치했다. 내러티브 기사와 통제 기사 모두 메르스 감염, 증상, 사망률 등의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를 담았다. 내러티브 기사는 메르스에 감염된 인물을 중심으로 감염 경로, 증상, 치료 등에 이르는 과정이 인과관계에 맞게 구성되었고, 통제 기사는 감염 경로, 증상, 치료 등 메르스와 관련된 의학적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내러티브 실험 처치의 조작 점검을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처치의 조작 점검을 묻는 문항은 ‘위의 기사는 메르스 감염에 대해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와 ‘위의 기사는 메르스 감염에 대해 개인의 사례를 위주로 작성되었다’ 등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통제 집단의 처치를 묻는 문항은 ‘위의 기사는 메르스 감염에 대해 의학적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와 ‘위의 기사는 메르스 감염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등의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실험 처치물의 조작 점검을 측정한 문항들의 평균값과 통제 집단의 조작 점검을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으로 독립 표본 *t*검정으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 실험 집단에서 내러티브 기사에 대한 조작 점검을 묻는 '기사의 유형이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와 '개인의 사례 중심으로 작성되었다'의 문항에 응답한 평균이 3.64(*SD* = 0.57)로 나타났고, 통제 집단의 평균은 2.90(*SD* = 0.70)으로 분석되어 두 집단 간의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 = 10.426, p = .000$). 반면, 실험 집단에서 논내러티브의 조작 점검을 묻는 '의학적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와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의 문항에 응답한 평균이 2.94(*SD* = 0.62)로 나타났고, 통제 집단에서의 평균은 3.32(*SD* = 0.60)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 = -5.621, p = .000$).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실험 처치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2) 주요 변인의 조작적 정의

(1) 내러티브와 통제 보도 메시지

이 연구에서는 내러티브를 힌야드와 크로이터(Hinyard & Kreuter, 2007, P. 778)가 정리한 "인물과 사건 그리고 배경을 포함하고 도입, 전개 그리고 결말의 극적인 구조를 갖춘 이야기"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실험 처치용 내러티브 기사를 작성했다. 내러티브 보도는 1) 메르스 감염자의 증상과 치료 등 일련의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제시되면서 인과적 관계에 맞게 기술되었고, 2) 메르스 감염과 치료로 고통 받는 감염자의 모습을 묘사했다. 반면, 통제 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www.mers.go.kr)에서 제시된 메르스 관련 정보에 근거해 감염 경로, 증상, 치료 등의 내용을 의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

적으로 기술했다. 내러티브와 통제 기사 각각 680여 자 분량으로 작성되었다.

3) 메시지 반응

(1) 몰입

이 연구에서 몰입은 ‘내러티브 속의 사건을 간접 경험하는 것’(Gerrig, 1993; Green & Brock, 2000)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측정은 그린과 블록 (Green & Brock, 2000)이 사용한 문항 중 일반적인 몰입과 구체적 상황을 제시한 문항 등을 메르스 상황에 맞게 재구성했다. ‘위의 기사를 읽는 동안, 기사가 전달하는 상황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위의 기사를 읽는 동안, 감염자들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다’ 등 4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2) 동일시

이 연구에서 동일시는 ‘등장인물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감정적·인지적 과정’(Moyer-Gusé & Nabi, 2010)으로 정의했다. 동일시의 측정을 위해서 코헨(Cohen, 2001)이 사용한 10개 문항 중 보도 유형이 지면 기사인 것과 구체적 상황이 메르스 감염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4개 문항을 재구성했다. ‘위의 기사를 읽으면서 기사 속의 메르스 감염된 인물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위의 기사를 읽으면서 기사 속의 메르스 감염된 인물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었다’, ‘위의 기사를 읽으면서, 마치 내가 기사 속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등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3) 자아 준거

자아 준거(self-referent)는 번크란트와 운나바(Burnkrant & Unnava 1995)가 정의한 ‘개인이 자신의 경험이나 기대를 메시지와 관계 짓는 반응’으로 규정했다. 설문 문항은 임아영·유수·최낙환(2014)이 사용한 4개의 설문 문항을 메르스 감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위의 기사를 읽는 동안 메르스 감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껴졌다’, ‘위의 기사를 읽는 동안 내가 겪었던 메르스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 등 4개 문항으로 재구성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4) 감정

슬픔은 ‘위의 기사를 읽고 메르스에 감염된다는 것이 슬프다고 느꼈다’, ‘위의 기사를 읽고 메르스에 감염된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고 느꼈다’, ‘위의 기사를 읽고 메르스에 감염된다는 것은 비애라고 느꼈다’ 등 3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했다. 공포는 ‘위의 기사를 읽고 메르스 감염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위의 기사를 읽고 메르스 감염에 대해 공포감을 느꼈다’, ‘위의 기사를 읽고 메르스 감염에 무서움을 느꼈다’ 등 3문항 5점 척도로 측정했다.

(5) 위협 인식

위협 인식 문항은 슬로비치(Slovic, 1987)가 분석한 위협 인식의 요인인 공포와 지식의 정도를 구성하는 특징들 중 메르스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고, ‘나는 메르스 감염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메르스 감염이 재앙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메르스 감염이 개인의 의지로 막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메르스 감염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협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메르스 감염의 피해

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메르스 감염 경로가 의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등 총 6개 문항을 구성해 5점 척도로 측정했다.

(6) 낙인

이 연구에서 낙인을 ‘메르스와 관련된 사람에 붙여지는 부정적 이미지, 감정적 반응 그리고 사회적 행동’(Gregory et al., 1995)으로 정의했다. 측정 문항은 칼리크만과 그의 동료들(Kalichman et al., 2004)이 사용한 에이즈 낙인을 측정했던 문항을 메르스 감염으로 교체해서 감정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으로 나누어 총 7개 문항으로 재구성했다. 감정적 차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다는 것은 혐오스럽다’ 등 4개 문항으로 측정했다. 행동적 차원에서 ‘메르스가 종식되어도,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 등 3문항으로 측정했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7) 냄비 성향

냄비 성향은 김영옥·장유진(2015)이 개발한 19개의 문항 중 16개 문항으로 재구성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따라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함께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는 편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큰 고민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는 것이 나의 일상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그 사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사안에 대한 열정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 등 ‘동조’와 ‘관심사의 지속성 부재’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5. 분석 결과

1) 모형 추정치 분석 결과

각 측정 문항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로 측정했으며 몰입은 .877, 동일시는 .835, 자아 준거는 .806, 슬픔 .867, 공포 .904, 위험 인식 .822, 낙인 .917, 냄비 .870으로 분석되어 유효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사용해, 통계적 타당도(Chi-Square)를 높이면서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 모수를 추정한 결과, $\chi^2 = 964.186$ ($df = 438, p = .00$)으로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이제곱 검정은 표본의 크기 또는 추정하고자하는 모수의 수, 상관계수의 크기 등에 영향을 받는 취약성을 고려해, 근사 적합도 지수인 SRMR, CFI, RMSEA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했다(Kline, 2012). 분석 결과 RMSEA = .062(CI = .057 - 0.067), CFI = .919, SRMR = .081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은 RMSEA는 .06 이상 .08 미만, 그리고 SRMR은 .08 이하이면 양호하다고 판단하고(Browne & Cudeck, 1993), CFI는 일반적으로 .9 이상이면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이 연구 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경로 모델로 설정된 모형과 관찰된 데이터가 서로 적합한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정 지수 중 이론적 근거를 통해 선택한 모수는 추가로 추정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모델은 $\chi^2 = 939.789$ ($df = 444, p = .0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카이제곱 검정이 갖는 제한점들을 고려해 클라인(Kline, 2011)이 제시한 세 가지의 근사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형 적합도를 평가했다. 분석 결

표 1. 연구 모형 변수 간 경로계수

경로계수	비표준화	표준화	표준오차
기사유형(내러티브) → 몰입	.428***	0.332***	0.074
몰입 → 동일시	.803***	.987***	.066
몰입 → 자아 준거	.790***	.951***	.067
자아 준거 → 슬픔	2.159***	1.629***	.493
자아 준거 → 공포	2.542***	1.952***	.649
동일시 → 슬픔	- 1.204*	- .889*	.503
동일시 → 공포	- 1.608*	- 1.208*	.663
슬픔 → 위험 인식	.642***	.475***	.080
공포 → 위험 인식	.160*	.219*	.073
위험 인식 → 낙인	.473**	.310**	.148
슬픔 → 낙인	- .273*	- .248*	.130
공포 → 낙인	.217	.194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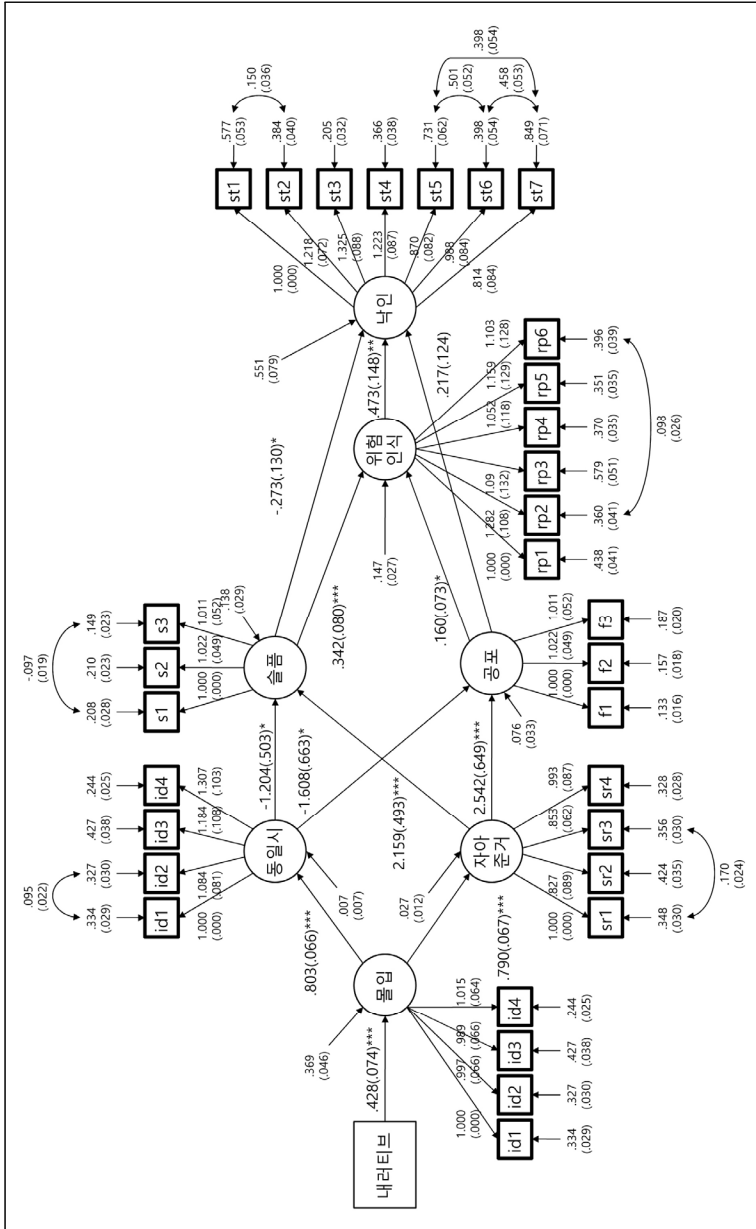
* < .05, ** < .01, *** < .001

과 RMSEA = .060(90% CI = .055 - .065), CFI = .923, SRMR = .076
 으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후 경로계수의 추정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용자들은 메르스 감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서술 방식으로 제시한 기사보다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 겪는 인물이 겪게 되는 사건을 묘사한 언론 보도에 대한 몰입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내러티브 보도에 대한 몰입은 내러티브 속 인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는 감정을 공감하는 동일시와 메르스 감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아 준거 반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검증되었다.

내러티브 반응인 동일시와 자아 준거 반응은 슬픔과 공포와 같은 부

그림 2. 내러티브, 내러티브 반응, 감정, 위험 인식, 그리고 낙인의 구조방정식 모형



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내러티브 메시지의 인물과 동일시가 증가할수록 공포가 감소될 뿐 아니라 슬픔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이 닥칠 위협으로 생각되는 자아 준거 반응이 증가할수록 공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슬픔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메르스와 같은 건강과 관련한 위협 내러티브 메시지는 내러티브가 없는 메시지에 비해서 등장인물과의 동일시가 증가할수록 공포와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감소하는 반면, 내러티브 메시지와 자신의 경험을 관련짓는 자아 준거 반응이 증가할수록 공포와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러나 슬픔과 공포가 모두 위협 인식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슬픔과 공포에 의해 위협 인식이 높아질수록 낙인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낙인에 대한 감정의 직접적 영향력은 슬픔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를 인간적 슬픔으로 느끼는 경우 메르스 감염자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거나 비난하는 낙인 형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메르스 감염과 감염자에 대한 공포는 낙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연구가설 3〉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2) 직접, 간접 효과 분석

직접과 간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잠재변수 간의 경로들 중에서 슬픔과 공포, 위협 인식, 그리고 낙인에 이르는 경로 분석을 실시했다.

내러티브 메시지 반응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슬픔이 위협 인식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내러티브에 나타난 메르스 감염자가 겪는 고통에 대해 슬픔을 느낄수록 감염자에 대한 낙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슬픈 감정이 증가할수록 위협 인식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슬픔, 위협 인

식, 그리고 낙인 간의 관계에서 위험 인식의 간접 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슬픔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비난과 정체성 훼손을 일으키는 낙인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위험 인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낙인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낙인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위험 인식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시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공포 감정의 경우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했으나 낙인에 직접적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공포, 위험 인식, 그리고 낙인 간의 관계에서 위험 인식의 간접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포가 낙인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포가 위험 인식과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정적인 데 기인하고, 선행 연구들이 지적했듯이 공포는 위험 인식과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낙인 예방

표 2. 낙인에 영향 미치는 부정적 감정(슬픔)의 간접 효과

		비표준화	표준 오차	표준화
직접 효과	슬픔 - 위험 인식	.342***	.080	.475
직접 효과	슬픔 - 낙인	-.273*	.130	-.248
간접 효과	슬픔 - 위험 - 낙인	.162**	.061	.147
전체 효과	슬픔 - 낙인	-.111	.120	-.101

표 3. 낙인에 영향 미치는 부정적 감정(공포)의 간접 효과

		비표준화	표준 오차	표준화
직접 효과	공포 - 위험 인식	.160*	.073	.219
직접 효과	공포 - 낙인	.217	.124	.194
간접 효과	공포 - 위험 - 낙인	.076	.040	.068
전체 효과	공포 - 낙인	.293*	.125	.262

과 감소를 위해서 공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분석 결과 감정이 위험 인식과 낙인을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3) 냄비 성향 고저 집단 간 차이 분석

냄비 성향이 높고 낮은 집단에 따라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의 효과가 조절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했다. 클라인(Kline, 2011)이 제안한 것과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집단 간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을 검정하고, 형태 동일성이 만족되면 측정 단위 동일성(metric invariance)을 검정하였다. 그리고 측정 단위 동일성이 만족된 상태에서 잠재변수 사이의 경로에 대해 집단 간 동일성을 검정하였다. 분석 절차와 검증 과정은 아래와 같다.

먼저 냄비 성향의 평균값은 3.2로 분석되었고, 냄비 성향이 3.2 이상인 집단을 고집단으로, 평균값 미만의 집단을 저집단으로 구분했다. 이후 형태동일성 검정을 위해 잠재변수의 평균들을 두 집단 모두 0으로 고정하였고,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도 같다고 제약하였다(Byrne, 2012). 분석 결과 $\chi^2 = 1462.100$ ($df = 888$, $p = .000$)로 통계적으로 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CFI = .906, RMSEA = .064(90% C.I. = .058 - .070), SRMR = .083로 만족할 만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형태동일성이 확인되었다.

다음 단계로 측정 단위 동일성을 검정하였다. 측정 단위 동일성 성립을 위한 영가설은 단순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인데, 분석 결과 자유도가 24개 감소($df_0 = 912 - 888 = 24$)하면서 카이 검정의 차이($\chi^2_D = 1485.673 - 1462.100$)는 23.573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χ^2 차이 검정에서 기각에 실패함으로써($p = .486$), 측정 단위 동일성 모형이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측정 단위 동일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잠재변수가 경로의 제약을 하

표 4. 냄비 성향 고저집단 간 경로계수 동일성 검정

경로	df	p
내러티브 → 몰입	$\chi^2_D = 1486,220 - 1485,673 = .547$ $df_D = 913 - 912 = 1$	$p = .460$
몰입 → 자아 준거	$\chi^2_D = 1493,411 - 1486,220 = 7,191$ $df_D = 914 - 913 = 1$	$p = .007$
몰입 → 동일시	$\chi^2_D = 1494,941 - 1493,411 = 1,53$ $df_D = 915 - 914 = 1$	$p = .216$
동일시 → 슬픔	$\chi^2_D = 1495,301 - 1494,941 = .36$ $df_D = 916 - 915 = 1$	$p = .549$
자아 준거 → 슬픔	$\chi^2_D = 1495,462 - 1495,301 = .161$ $df_D = 917 - 916 = 1$	$p = .688$
동일시 → 공포	$\chi^2_D = 1495,462 - 1495,462 = 0$ $df_D = 918 - 917 = 1$	-
자아 준거 → 공포	$\chi^2_D = 1497,038 - 1495,462 = 1,576$ $df_D = 919 - 918 = 1$	$p = .209$
공포 → 위험	$\chi^2_D = 1497,039 - 1497,038 = .001$ $df_D = 920 - 919 = 1$	$p = .975$
슬픔 → 위험	$\chi^2_D = 1499,053 - 1497,039 = 2,014$ $df_D = 921 - 920 = 1$	$p = .156$
위험 → 낙인	$\chi^2_D = 1503,009 - 1499,053 = 3,956$ $df_D = 922 - 921 = 1$	$p = .047$
슬픔 → 낙인	$\chi^2_D = 1503,660 - 1503,009 = .651$ $df_D = 923 - 922 = 1$	$p = .420$
공포 → 낙인	$\chi^2_D = 1503,730 - 1503,660 = .07$ $df_D = 924 - 923 = 1$	$p = .791$

나씩 늘려가는 방법으로 경로계수 동일성을 검정하였다(김수영, 2016). 먼저, 내러티브에서 몰입 경로에 집단 간 동등한 제약을 주었다. 내러티브에서 몰입에 이르는 경로를 제약한 단순한 모형에서 경로 제약이 없는 복잡한 모형을 의미하는 측정 단위 동일성 모형의 자유도의 차이는 1이고, 검정 통계량의 차이($\chi^2_D = 1486.220 - 1485.673$)가 0.54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H_0 기각에 실패하였다($p = .460$). 즉, 내러티브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냄비 성향의 고집단과 저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단계로 몰입에서 자아 준거 경로를 제약한 결과, 검정 통계량의 차이($\chi^2_D = 1493.411 - 1486.220$)가 7.191로 나타나, 영가설이 기각되면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7$). 냄비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내러티브 몰입에서 자아 준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냄비 성향 고집단 = .905($p =$

.000), 냄비 성향 저집단 = .562($p = .000$). 즉,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그 동조의 열정이 쉽게 식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메르스 감염 내러티브에 몰입해서 자신의 위험으로 느끼는 자아 준거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10개의 경로계수의 동일성을 분석한 결과, 위험 인식에서 낙인에 이르는 경로계수의 동일성 검정에서 냄비 성향 고저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냄비 성향 고집단 = .624($p = .006$), 냄비 성향 저집단 = .152 ($p = .840$)). 냄비 성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위험 인식이 높은 경우 낙인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냄비 성향은 메르스 감염에 대한 위험 인식과 상호작용하여 감염자를 차별하고 비난하고 배제시키는 낙인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 1>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6. 결론

이 연구는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보도의 역할에서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내러티브 반응 효과에 주목했다. 내러티브 반응 효과를 통해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것은 내러티브 반응 효과가 감정과 연관되며, 특히 공포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위험 인식과 낙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근거한다.

연구 결과 메르스 감염 위험에 대해 내러티브 보도를 접한 수용자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메르스 위험을 전달하는 보도를 접한 수용자들보다 보도에 몰입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기사에 대한 몰입이 등장인물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는 동일시를 증가시키는 경우 메르스 감염과 감염자에 대한 공포와 슬픔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메시지 몰입을 통해 위험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과 부정적

결과를 자신의 미래 위협으로 인식하는 자아 준거 반응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공포와 슬픔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일시와 자아준거와 같은 내러티브 반응이 슬픔과 공포와 같은 개별적인 감정에 작용하기보다 부정적인 감정 전반에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용자들이 내러티브 기사에 몰입해 등장인물의 관점을 유지할 때는 슬픔과 공포가 모두 감소하는 반면, 자신의 관점으로 전환되었을 때 슬픔과 공포가 모두 증가하는 등 감정의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부분은 위험 인식과 낙인에 대한 감정의 역할이다. 선행 연구에 근거하면 공포는 낙인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위험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낙인을 형성한다(Peters et al., 2004). 이 연구에서는 공포 감정의 경우 위험 인식에 직접적 영향력은 정적으로 유의미했지만, 낙인의 직접적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공포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위험 인식의 간접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낙인에 대한 공포의 전체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포가 위험 인식과 낙인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부정적 감정이라는 선행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낙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포가 지나치게 위험 인식을 높이지 않도록 공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낙인은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고 보는 사회적 규범의 결과이거나(Link & Phelan, 2001), 지각된 위협과 공포 반응이거나(Ogden & Nyblade, 2005). 또는 도덕성과 관련된 사회적 과정이다(Alonzo & Reynolds, 1995). 따라서 메르스 감염 대상의 고통에 감정 이입을 통해 이들이 처한 현실을 비애로 느끼는 경우, 메르스 감염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열등하거나 배제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낙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슬픔이 위험 인식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했고, 위험 인식의 간접 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슬픔이 낙인을 감소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만, 위험 인식을 높이는 경우에는 낙인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낙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 인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냄비 성향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회적 현안에 대해 폭발적인 동조를 보이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쇠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나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기 때문이다. 메르스 낙인에도 냄비 성향이 작용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 검증할 수 있었는데, 특히 보도 내러티브에 몰입과 자신의 경험과 위험을 관련짓는 자아 준거 반응 간의 관계에서 냄비 성향이 높을수록 몰입이 자아 준거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위험 인식이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냄비 성향의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냄비 성향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개인 안전에 대한 욕구를 높여, 타인의 감염을 자신의 미래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증가시켰고, 냄비 성향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동조로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배타적 행위로서 낙인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메르스 감염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냄비 성향은 안전과 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인 성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외집단을 배제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동조로도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생명과 재산에 관계된 위험 관련 이슈에서 냄비 성향은 위험 사안이 2차 3차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증폭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낙인화를 이해하는 데 사회문화 변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에 따라 위험 관련 보도 유형에 대한 저널리스트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물이 겪는 사건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기사에서 수용자들이 기사에 몰입해서 위험을 대리 경험하는 경우 자신의 미래 위험으로 관련짓게 되면 공포와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증가시

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위험 관련 기사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이 지양되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등장인물과의 동일시는 공포와 슬픔을 감소시키고 이는 낙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아 준거 반응으로 전환되지 않은 임계점에서 보도의 내러티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보도 내러티브에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했으나 미디어 이용 수준에 대해서도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 해석에서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을 밝힌다. 연구 가설과 별도로 연령과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연구 모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공포가 위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에 따라서는 공포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개인 변인들이 영향력이 밝혀져서 위험 메시지가 감정과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권관우 · 이경무 · 변진옥 (2002). HIV/AIDS 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별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12권, 199-218.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여라 (2010).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가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4권 3호, 206-227.
- 김영옥 (2014). 언론에 나타난 냄비근성의 의미 분석.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2권 2호, 33-62.
- 김영옥 · 장유진 (2015). 냄비 성향 척도개발과 타당성 검증. <커뮤니케이션이론>, 11권 4호, 171-205.
- 임아영 · 유수 · 최낙환 (2014). 긍정감정과 자아 준거적 내러티브를 유도하는 광고와 제품 평가.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5-144쪽). 한국산업경제학회.
- 최현석 (2011). <인간의 모든 감정>. 파주: 서해문집.
- Alonzo, A. A., & Reynolds, N. R. (1995). Stigma, HIV and AIDS: An exploration and elaboration of a stigma trajectory. *Social Science & Medicine*, 41(3), 303-315.
- Appel, M., & Richter, T. (2007). Persuasive effects of fictional narratives increase over time. *Media Psychology*, 10, 113-134.
- Banerjee, A. V. (1992). A simple model of herd behavio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 797-817.
- Baumeister, R. F., Vohs, K. D., DeWall, C. N., & Zhang, L. (2007). How emotion shapes behavior: Feedback, anticipation, and reflection, rather than direct caus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 167-203.
- Bird, E., & Dardenne, R. (1988), Myth, chronicle, and story: Exploring the narrative quality of news. In J. W. Carey (Ed.), *Media, myths, and narratives-television and the pres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Bomlitz, L. J., & Brezis, M. (2008). Misrepresentation of health risks by mass media. *Journal of public health*, 30, 202-204.

- Böhm, G., & Pfister, H. R. (2000). Action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risks. *Acta Psychologica, 104*, 317-337.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Burnkrant, R. E., & Unnava, H. R. (1989). Self-referencing a strategy for increasing processing of message cont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 628-638.
- Busselle, R., & Bilandzic, H. (2009). Measuring narrative engagement. *Media Psychology, 12*(4), 321-347.
- Byrne, B. M.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Mplu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New York, NY: Taylor & Francis Group.
- Cialdini, R. B., & Goldstein, N. J. (2004). Social influence: Compliance and conform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591-621.
- Clore, G. L., Schwarz, N., & Conway, M. (1994). Affectiv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R. S. Wye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pp. 323-41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hen, J. (2001). Defining identification: A theoretical look at the identification of audiences with media character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4*, 245-264.
- Cohen, J. (2006). Audience identification with media characters. *Psychology of Entertainment, 13*, 183-197.
- Cogan, J., & Herek, G., (1998). Stigma. Retrieved from <http://www.thebody.com/content/art14039>.
- Corrigan, P. W. (2000). Mental health stigma as social attribution: Implications for research methods and attitude change.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7*, 48-67.
- Corrigan, P., Markowitz, F. E., Watson, A., Rowan, D., & Kubiak, M. A. (2003). An attribution model of public discrimination towards persons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 162-179.
- Crompton, T. (2011). Weathercocks and signposts: The environment movement at a crossroads. Retrieved from <http://wwf.org.uk/strategiesforchange>.

- David, B., & Turner, J. C. (1999). Studies in self-categorization and minority conversion: The in-group minority in intragroup and intergroup contex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 115-134.
- De Graaf, A., Hoeken, H., Sanders, J., & Beentjes, H. (2009). The role of dimensions of narrative engagement in narrative persuasion. *Communications: The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34*, 385-405.
- De Wit, J. B., Das, E., & Vet, R. (2008). What works best: Objective statistics or a personal testimonial? An assessment of the persuasiv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message evidence on risk perception. *Health Psychology, 27*, 110-115.
- Downs, A. (1972). Up and down with ecology-the issue attention cycle. *Public Interests, 28*, 38-50.
- Dunlop, S., Wakefield, M., & Kashima, Y. (2008). Can you feel it? Negative emotion, risk, and narrative in health communication. *Media Psychology, 11*, 52-75.
- Epstein, S. (1994). Integration of the cognitive and the psychodynamic unconscious. *American Psychologist, 49*, 709-724.
- Erb, H. P., Bohner, G., Schmilzle, K., & Rank, S. (1998). Beyond conflict and discrepancy: Cognitive bias in minority and majority influ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620-633.
- Erb, H. P., Bohner, G., Rank, S., & Einwiller, S. (2002). Processing minority and majority communications: The role of conflict with prior attitud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172-1182.
- Escalas, J. E. (2007). Self-referencing and persuasion: Narrative transportation versus analytical elabor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3*(4), 421-429.
- Fabrigar, L. R., & Petty, R. E. (1999). The role of the affective and cognitive bases of attitudes in susceptibility to affectively and cognitively based persua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363-381.
- Forgas, J. P. (2000). Affect and information processing strategies: An interactive relationship. In J. P. Forgas (Ed.), *Feeling and thinking: The role of affect in social cognition* (pp. 253-280).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rrig, R. J. (1993). *Experiencing narrative worlds: On the psychological*

- activities of reading*.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Graesser, A. C., Olde, B., & Klettke, B. (2002). How does the mind construct and represent stories? In M. C. Green, J. J. Strange, & T. C. Brock (Eds.), *Narrative impact: Social and cognitive foundations* (pp. 229-262). Mahwah, NJ: Lawrence Erlbaum.
- Green, M. C. (2004). Transportation into narrative worlds: The role of prior knowledge and perceived realism, *Discourse Processes*, *38*, 247-266.
- _____(2005). Transportation into narrative worlds: implications for the self. In A. Tesser, J. V. Wood, & D. A. Stapel (Eds.), *On Building, Defending and Regulating the Self: A Psychological Perspective* (pp. 53-75). Psychology Press, New York.
- _____(2006). Narratives and cancer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6*, S163-S183.
- Green, M. C., & Brock, T. C. (2000). The role of transportation in the persuasiveness of public narra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701-721.
- _____(2002). In the mind's eye: Transportation-imagery model of narrative persuasion. In M. C. Green, J. J. Strange, & T. C. Brock (Eds.), *Narrative impact: Social and cognitive foundations* (pp. 315-341). Mahwah, NJ: Erlbaum.
- Green, M. C., Brock, T. C., & Kaufman, G. F. (2004). Understanding media enjoyment: The role of transportation into narrative worlds. *Communication Theory*, *14*, 311-327.
- Gregory, R., Flynn, J., & Slovic, P. (1995). Technological stigma. *American Scientist*, *83*, 220-223.
- Herek, G. M. (1999). AIDS and stigma.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 1106-1116.
- _____(1990). Illness, stigma, and AIDS. In P. T. Costa, Jr. & G. R. VandenBos (Eds.), *Psychological aspects of serious illness: Chronic conditions, fatal diseases, and clinical care* (pp. 107-15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inyard, L. J., & Kreuter, M. W. (2007). Using narrative communication as a tool for health behavior change: A conceptual, theoretical, and empirical overview. *Health Education & Behavior*, *34*, 777-792.
- Kalichman, S. C., Simbayi, L. C., Jooste, S., Toefy, Y., Cain, D., Cherry, C., &

- Kagee, A. (2005). Development of a brief scale to measure AIDS-related stigma in South Africa. *AIDS and Behavior, 9*(2), 135-143.
- Kasperson, R. E., Jhaveri, N., & Kasperson, J. X. (2001). Stigma and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oward a framework of analysis. In J. Flynn, P. Slovic, & H. Kunreuther (Eds.), *Risk media and stigma* (pp. 9-27). London: Earthscan.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azarus, R. S. (1991). Progress on a cognitive-motivational-relational theory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 819-834.
- Link, B. G., &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363-385.
- Mak, W. W., Mo, P. K., Cheung, R. Y., Woo, J., Cheung, F. M., & Lee, D. (2006). Comparative stigma of HIV/AIDS, SARS, and tuberculosis in Hong Kong. *Social Science & Medicine, 63*, 1912-1922.
- Mazur, A. (1984). The journalist and technology: Reporting about love canal and three mile island. *Minerva, 22*, 45-66.
- McQueen, A., Kreuter, M. W., Kalesan, B., & Alcaraz, K. I. (2011). Understanding narrative effects: the impact of breast cancer survivor stories on message processing, attitudes, and beliefs among African American women. *Health Psychology, 30*, 674-682.
- Moyer-Gusé, E. (2008). Toward a theory of entertainment persuasion: Explaining the persuasive effects of entertainment-education messages. *Communication Theory, 18*, 407-425.
- Moyer-Gusé, E., & Nabi, R. L. (2010). Explaining the effects of narrative in an entertainment television program: Overcoming resistance to persuas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6*(1), 26-52.
- Mumby, D. (1993). *Narrative and social control: Critical perspectiv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Murray, D. R., Trudeau, R., & Schaller, M. (2011). On the origins of cultural differences in conformity: Four tests of the pathogen prevalence hypo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 318-329.
- Ogden, J., & Nyblade, Laura, C. (2005). *Common at its core: HIV-related stigma across context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 Oatley, K. (1999). Why fiction may be twice as true as fact: Fiction as cognitive and emotional simul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3*, 101-117.
- Parker, R., & Aggleton, P. (2003). HIV and AIDS-related stigma and discrimination: A conceptual framework and implications for ac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57*, 13-24.
- Peters, E. M., Burraston, B., & Mertz, C. K. (2004). An emotion-based model of risk perception and stigma susceptibility: Cognitive appraisals of emotion, affective reactivity, worldviews, and risk perceptions in the generation of technological stigma. *Risk analysis, 24*, 1349-1367.
- Schank, R. C., & Abelson, R. P. (1995). Knowledge and memory: The real story. In R. S. Wyer, Jr. (Ed.), *Advances in social cognition* (pp. 1-85). Hillsdale, NJ: Erlbaum.
- Sjöberg, L. (2004). Local acceptance of a high-level nuclear waste repository. *Risk analysis, 24*, 737-749.
- Slater, M. D., & Rouner, D. (2002). Entertainment-education and elaboration likelihood: Understanding the processing of narrative persuasion. *Communication Theory, 12*, 173-191.
-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0*, 280-285.
- Slovic, P., Finucane, M. L., Peters, E., & MacGregor, D. G. (2004). Risk as analysis and risk as feelings: Some thoughts about affect, reason, risk, and rationality. *Risk analysis, 24*, 311-322.
- Sunstein, C. R. (2009). *On Rumors: How falsehoods spread, why we believe them, what can be don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이기동역 (2009). <루머>. 서울: 프리뷰.
- Tetlock, P. E. (1985). Accountability: The neglected social context of judgment and choice. In B. Staw & L. Cummings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pp. 297-332). Greenwich, CT: JAI Press.
- _____. (1992). The impact of accountability on judgment and choice: Toward a social contingency model.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331-376.
- Tetlock, P. E., Skitka, L., & Boettger, R. (1989). Social and cognitive strategies for coping with accountability: Conformity, complexity, and bolste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32-640.

- Weiss, M. G., Ramakrishna, J., & Somma, D. (2006). Health-related stigma: Rethinking concepts and interventions. *Psychology, Health & Medicine, 11*, 277-287.
- White, P. (1997). Death, disruption and the moral order: The Narrative impulse in mass-media "hard news" reporting. In F. Christie & J. Martin (Eds.), *Genre and Institutions: Social processes in the workplace and school* (pp. 101-133). London and Washington, D.C.: Cassell.
- Wilson, K., Mills, E. J., Norman, G., & Tomlinson, G. (2005). Changing attitudes towards polio vaccination: a randomized trial of an evidence-based presentation versus a presentation from a polio survivor. *Vaccine, 23*, 3010-3015.
- Xie, X. F., Wang, M., Zhang, R. G., Li, J., & Yu, Q. Y. (2011). The role of emotions in risk communication. *Risk Analysis, 31*, 450-465.
- Yamada, S., Caballero, J., Matsunaga, D. S., Agustin, G., & Magana, M. (1999). Attitudes regarding tuberculosis in immigrants from the Philippines to the United States. *Fam Med, 31*, 477-482.

JTBC (2015. 6. 26). '음성' 판정 받았지만, '메르스 전파자 낙인' 이중고. 아침 & 연합TV뉴스 (2015. 6. 22). 가족까지 '감염덩어리' 낙인, 메르스 의료진 이중고. 출발640.

투고일자: 2016년 10월 15일

심사일자: 2016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12월 01일

부록

A: 비내러티브 보도

메르스(MERS)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이다. 2012년 4월 최초 환자가 보고된 이후 2015년 6월 5일까지 25개국에서 발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 풍토병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중동 이외에 터키, 영국, 말레이시아 등 15개국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 환자가 중증 급성 하기도 질환(폐렴)이나 일부는 무증상을 나타내지만, 경한 급성 상기도 질환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주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 곤란이다. 그 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뿐만 아니라 식욕 부진, 구토, 복통, 설사 등을 보인다. 합병증으로 호흡 부전,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이 있으며 신부전을 동반하는 급성신부전 동반 사례가 사스보다 높게 나타난다. 당뇨, 만성 폐질환, 암, 신부전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면역 기능 저하자는 메르스 감염이 높고 예후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반적 검사 소견으로는 백혈구 감소증, 림프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이며 잠복기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다. 모든 환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중동 지역과 연관되었고, 가족 간 전파와 의료기관에서의 제한적 전파로 인한 유행이 보고되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보고되었고 사람 간 전염은 대부분 병원 내 감염과 가족 간 감염이다. 개인 간 감염은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진료/치치/병실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등이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고 치료는 증상에 따른 대증 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B: 내러티브 보도

2015년 5월 20일 중동에서 귀국한 남성이 메르스(MERS) 첫 환자로 확진된 뒤 대한민국이 메르스 공포에 떨었다. 확진 환자 186명, 사망자 38명에 환자와 직간접으로 접촉해 격리된 인원이 1만6000여 명에 달했다. 메르스 확산 속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두 배에 육박했고 한국은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속수무책으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겪은 고통은 메르스 공포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부부가 모두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한 K씨 부부. 남편 K씨가 맹장 수술로 입원한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되었고 남편을 간호하던 K씨의 부인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원한 병원의 의료진이 메르스 환자가 있던 것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공포에 떨었다. 40%에 달한다는 치사율은 이들 부부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육체적 고통도 참기 힘든 수준이었다. 남편은 수술한 직후라서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평소 면역력이 약했던 부인도 각혈을 하는 등 심각한 폐렴 증세를 보였다. K씨 부부는 백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치료법도 없는 메르스와 고독한 사투를 벌였다. 치료를 받던 K씨 부부는 의료진들에게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으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심지어 부인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 달라고 울부짖기까지 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살아서 병실을 나갈 수 없다는 공포가 이들 부부를 괴롭혔다. 치료 시작 일주일이 지난 후 남편은 호흡 곤란과 계속되는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신부전증으로 사망했다.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부인은 의식을 잃고 이를 만에 사망했다. 이들 부부의 시신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장례 절차 없이 24시간 이내 화장되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가족에게 돌아갔다.

Abstract

The effects of narrative responses and the Boiling Pot Syndrome on stigmatization in the MERS incident

Yungwook Kim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Seungkyoung Ham

Ph.D. Candidat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hich focuses on the MERS stigmatization, was conducted in order to seek the ways of preventing the so-called second MERS stigmatization that can occur anytime anywhere in the Korean risk society. By analyzing the effects of emotional responses occurred by narrative messages, the study identified the pivotal role of emotions that can be delivered by media coverages in the context of risk events. In particular, while sadness increases the level of risk perception, it was also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f decreasing the level of stigmatization. In addition, the study indicated the indirect effect of risk percep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d emotion and stigmatization. The study also explored how the Boiling Pot Syndrome, which is considered an indigenous explanatory variable for the Korean society, affects the relationships among narrative responses, emotion, risk perception, and stigmatization. The study implications for preventing the risk stigmatization proces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KEY WORDS Narrative Responses, Emotion, Risk Perception, Stigmatization, Boiling Pot Syndrome